

## 태광산업 주주님께 드리는 서한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광산업 공동대표이사 정인철, 이부의입니다.

현재 기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 성장 전략 추진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두 명의 대표이사가 이를 각각 전담하여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금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는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인된 주주 여러분의 의견과 기대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주주님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IR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중장기 경쟁력 확보와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성장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향후 재무 여건과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가치 제고 방안 또한 균형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주 서한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경산업 인수를 마무리하며 K-뷰티를 중심축으로 한 B2C 확대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위해 동성제약 인수를 진행중입니다.

또한 공시된 바와 같이 케이조선 인수를 위해 투자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매각주관사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 활용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現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명동)' 호텔을 인수하였으며, 신규 부지 매입 등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연계한 사업 기회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도 일부 주주님들께서 신사업의 방향성과 추진 기준에 대해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당사의 신사업은 개별 투자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기준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장치산업 기반 B2B 사업 구조에서 나아가 소비재 및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B2C 영역으로의 확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개발 등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산 투자를 통해 사업 기반의 안정성을 함께 강화하려 합니다.

이러한 신사업 추진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확정되는 대로 주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가고,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일

태광산업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정 인 철   
공동대표이사 이 부 의 